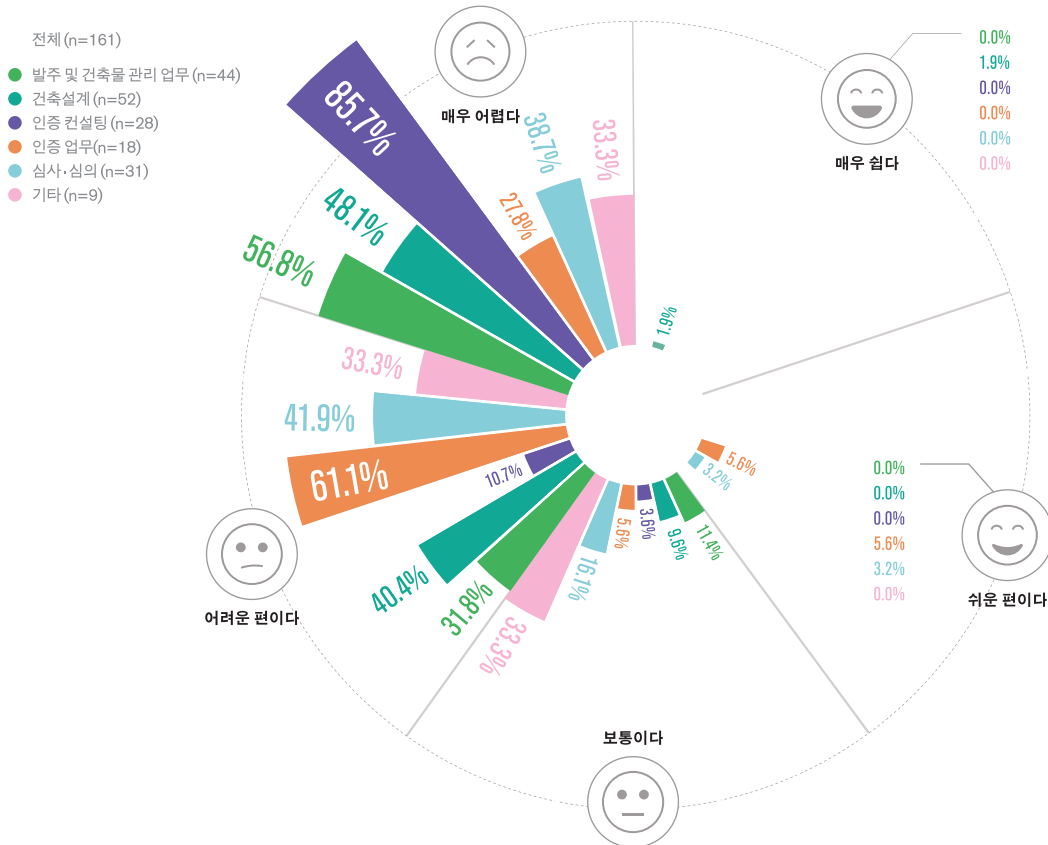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건축공간연구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인증기관 내 인증 업무 담당자, 심사 또는 심의 위원, 설계자, 공공건축물을 발주하거나 건축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주, 인증 컨설팅 관계자 등 161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다.

Q BF 인증 업무의 난이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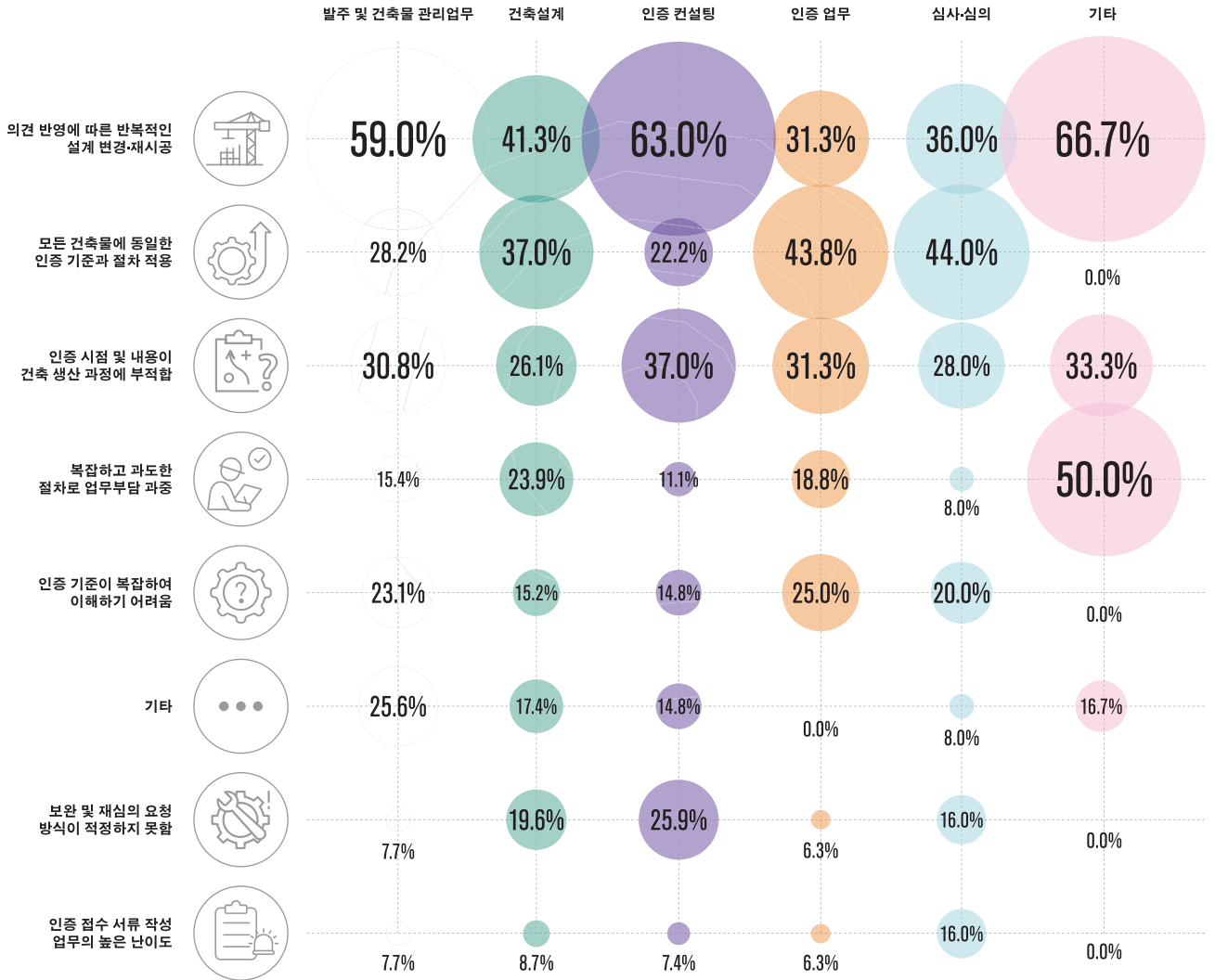


A 다른 유사한 건축물 성능 인증 업무보다 어렵고 힘든 BF 인증 업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BF 인증 업무의 난이도가 다른 유사한 건축물 성능 인증 업무보다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 컨설팅 분야에서는 85.7%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발주 및 건축물 관리 업무와 건축설계 분야에서 각각 56.8%와 48.1%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전문가는 BF 인증을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BF 인증 업무가 어려운 원인은 무엇일까?

(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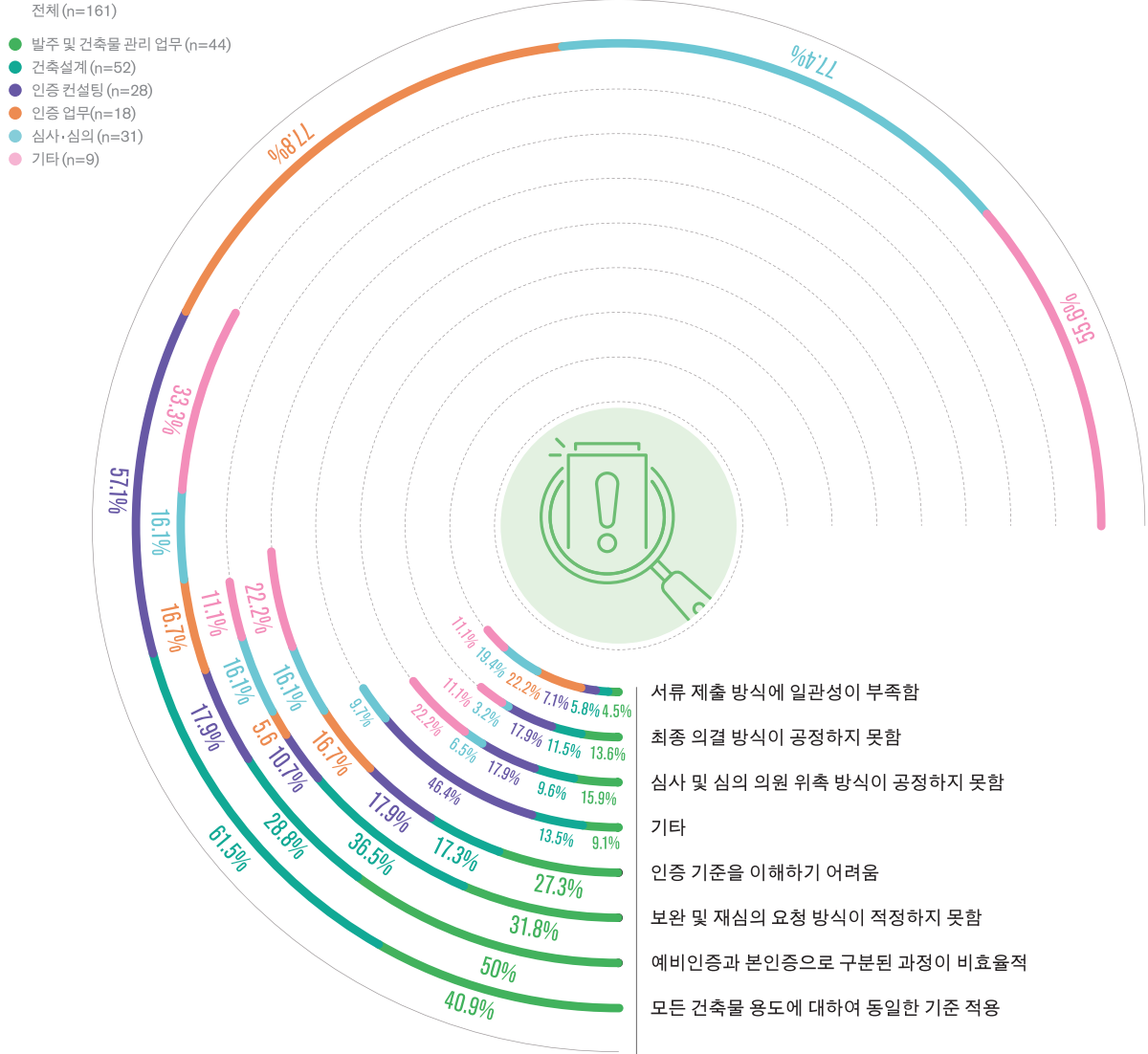
A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재시공'이 가장 큰 원인

BF 인증 업무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재시공'이 지적되었다. 특히 인증 컨설팅(63.0%)과 발주 및 건축물 관리 업무(59.0%) 분야에서 이를 첫 번째 원인이라고 답변하였다.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인증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주요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인증 업무와 심사 및 심의 위원 그룹을 중심으로 응답이 많았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시점과 점검 내용이 건축 생산 과정에 적합하지 않음'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기준의 복잡성'도 일부 분야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Q 인증 절차상의 문제점은?

(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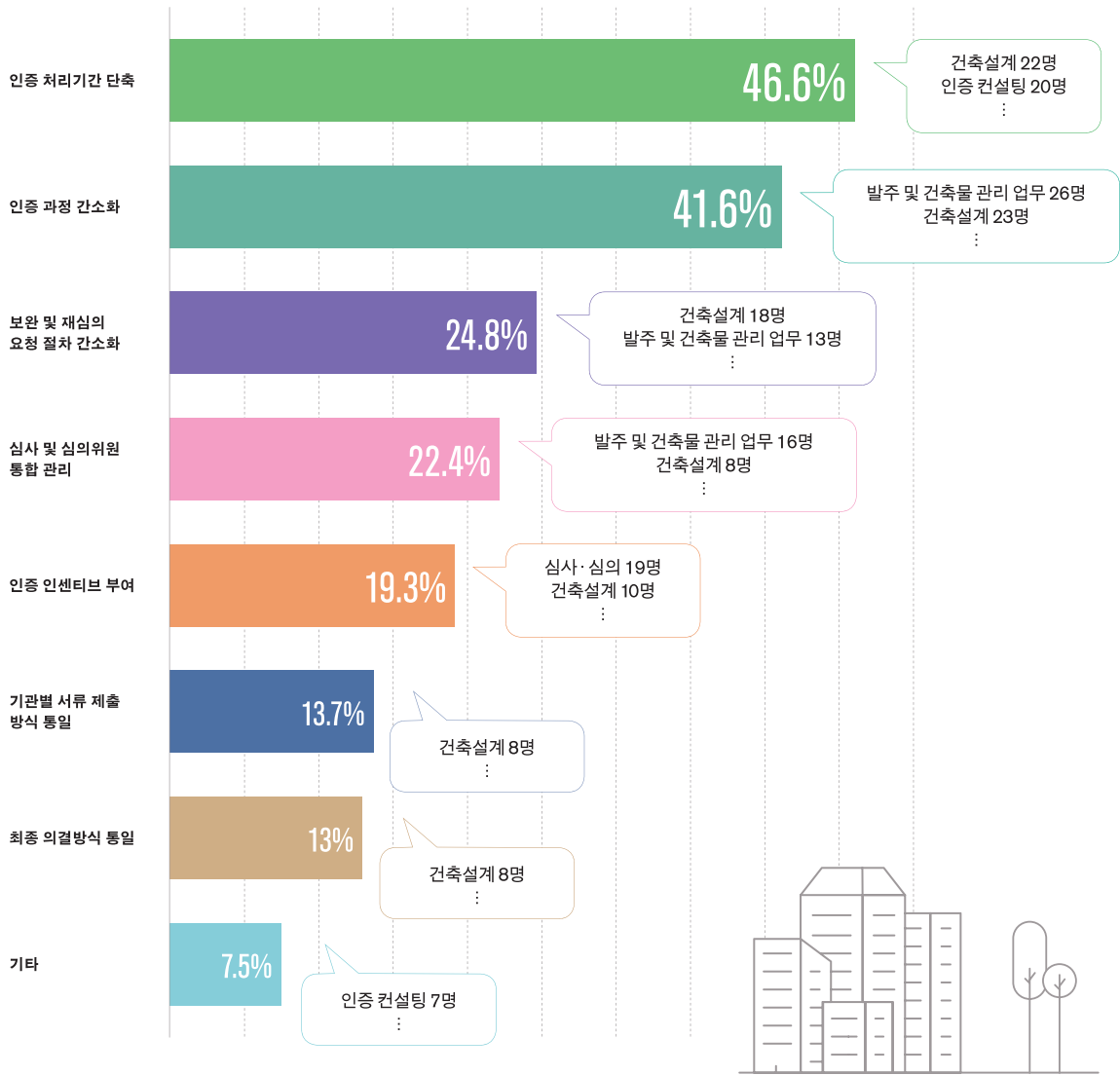


A '모든 건축물 용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적

인증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모든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발주 및 건축물 관리 업무 담당자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 과정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보완 및 재심의 요청 방식이 적정하지 못함'과 '인증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Q 인증 절차,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까?

(n=161, 1+2순위 중복응답)



A 인증 처리기간 단축 노력 필요

인증 운영 절차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인증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인증 과정 간소화’가 그 뒤를 이었다. ‘보완 및 재심의 요청 절차 간소화’와 ‘심사 및 심의 위원 통합 관리’에 대한 답변도 도출되었다. 인증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건축물 유형과 특성에 따른 인증 절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패스트트랙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